

2023. 8. 23.(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2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02-2133-731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02-2133-734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미래 위해 관계기관 뜻 모아...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주거·의료·생계 등 지원...22일(화), 6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협약
- 공공·민간 자원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생계비·주거비, 의료서비스 등 제공
- 8월 말부터 사업별 순차적으로 전담기구(02-6353-0336~9) 통해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오 시장, “협약으로 실질적인 지원 가능,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6개 공공·민간 기관과 손잡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학습 등 지원에 앞장섰다.

○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8월 22일(화) 1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①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②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 원(주식회사 365mc) ③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 원(희망친구 기아대책) ④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 원(초록우산) ⑤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등을 지원한다.

-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9호)을 제공한다.
 -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방 2~3개 이상의 신축 주택을 제공하며 임대계약 기간 갱신 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주식회사 365mc(대표이사 김남철)’에서는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 제공과 함께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 원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한다.

-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60만 원(인당), 주거비 항목으로 연간 500만 원(가구당)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효림의료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는 공공·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 서울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하여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 LH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 자격·추진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구(02-6353-033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각 기관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홍보와 가족돌봄청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오세훈 시장은 “놓아버리고도 싶을 막중한 책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래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여유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례 유형화와 제대로 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생계·의료·일상생활 등 지원을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제 규정 및 관계 법령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서울특별시” 는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와 생계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한 매입임대주택 9개 호를 가족돌봄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주식회사 365mc” 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걷지방’ 및 걸음기부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족돌봄청년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태블릿 및 데이터요금(2년간)과 돌봄대상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4. “초록우산” 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주거·학습·의료비(간병비 포함) 등을 지원한다.
5. “희망친구 기아대책” 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주거·학습·의료비(간병비 포함)와 가족돌봄청년의 자조모임비를 지원한다.
6. “효림의료재단” 은 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자(5명)에게 효림요양병원 입원(약대, 식대, 입원비 포함), 진료·간병·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7.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간 후원을 연계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어느 한 기관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안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협약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하며 이는 협약의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협약 변경 또는 해지)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각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8조(협약의 서명)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7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하며 각각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2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오 세 훈



사장
이 한 준



대표이사
김 남 철



회장
황 영 기

代

代



회장
유 원 식



이사장
박 명 속



회장
김 현 훈

代

代

Q1. 이번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22.10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2.12월부터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각 기관들에서 자발적으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고, 서울시는 각 기관들과 함께 뜻을 모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자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협약의 그간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 '23년 상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별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과 규모,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이후 '23.8.1. 운영 개시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서울시, 각 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세부일정 등은 조율중입니다.

Q3. 협약식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개별 사업별로 공고문을 통해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각 지원별 내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02-6353-0336~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